

“당연히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게 당연해”

– 동독 생태문학의 지형도 (I)

박 현 정 (계명대)

들어가는 말

생태문학은 독일분단 이후 동독과 서독의 양 진영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문학의 한 흐름이다¹⁾. 그 중 동독은 서독과는 다른 정치이념과 경제발전의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50년대 건설문학과 60년대 도달문학을 거치면서 새로운 기술 및 과학의 발전, 근대적 산업화에 따른 환경파괴와 생태적 불균형을 다루는 생태적 주제를 강도높게 다루었다. 동독 문인들은 우선 현실체제의 정당성을 비판하고, 이를 넘어서서 자연과학과 기술에 의존하는 진보사상, 물질과 정신의 파괴, 인간과 자연의 소외, 산업 사회의 잠재된 파괴력,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 등의 생태적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었다.²⁾ 본 논문 『동독 생태문학의 지형도 (I)』는 국내 생태문학의 범주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빈약한 동독 특유의 생태 및 환경문학의 전개양상을 개괄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³⁾ 제 1부의 내용은 생태문학이 생겨난 사회학적 배경과 동독 건설 초기 마르크스적 생태관, 문학적 생태논의, 종교적 생태운동, 동독 문인협회 활동 등의 문화적 생태논의를 고찰하고, 이에 상응하는 몇몇 텍스트를 함께 분석할 것이다. 논문의 연구범위는 동독 재건당시에서 자연과 환경에 관한 논의가 형성되기 시

1) 생태문학의 정의와 분류에 관하여 김용민, 생태문학: 대안사회를 위한 꿈, 책세상 2003, 76-137 참조

2) Vgl. David Bathrick, Die Zerstörung oder der Anfang von Vernunft? Lyrik und Naturbeherrschung in der DDR, in: Reinhold Grimm/Jost Hermand (Hrsg.), Natur und Natürlichkeit, Königstein/Ts. 1981, S. 150-167, hier S. 151

3) 김용민의 「전후 서독문학에서 자연시의 전개과정」(실린 곳: 현실 인식과 독일문학, 1990, 489-521쪽)과 이동승의 「독일의 생태시. 그것의 이해를 위한 서론」(실린 곳: 외국문학 7/1990, 32-55쪽)은 서독 생태시 흐름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서로 간주된다.

작하던 1970년대까지 발표된 작품으로 제한한다.⁴⁾

I. 동독 생태문학의 배경

1. 마르크스/엔겔스 이론으로 본 인간과 자연

생태철학적 입장에서 마르크스는 분명 자연의 위치를 인간과 동등하게 설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자연은 “인간과 연결 Band mit dem Menschen”되어 인간과 함께 상호작용하며 동시에 “인간은 자연의 일부 Mensch ist ein Teil der Natur”⁵⁾로서 자연과 끊임없이 관계하고 호흡하는 존재이다. 나아가 사회 Gesellschaft란 “인간과 자연의 완벽한 일체 die vollendete Wesenseinheit des Menschen mit der Natur”이자 “자연의 진정한 부활 die wahre Resurrektion der Natur”⁶⁾로 규정된다. 또한 마르크스의 『자본론 Das Kapital』에 따르면 인간은 노동 Arbeit을 통하여 “자연과 순환 구조 Stoffwechsel mit der Natur”⁷⁾에 놓이게 되며 이 때 노동이라는 행위는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우려하던 자본주의의 미래는 동독이 훗날 맹목적인 기술신봉과 무제한적 산업성장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던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점은 엔겔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간단히 말해서, 동물은 외부자연을 일차적으로 *사용*할 뿐이며 그 속에서 자연과 함께 변화한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의 변형을 통해 자신의 목적에 기여하도록 만들고 이를 *지배한다*. 이것이 인간이 여타의 동물들과 다른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이러한 차이는

4) 미리 예정된 논문의 2부 『동독 생태문학의 지형도(II)』에서는 체르노빌 원전사고(1986)를 정점으로 하는 1980년대 동독의 본격적 생태문학(생태시, 생태소설, 생태산문)의 흐름을 당시 회자된 다양한 개념정의 및 텍스트를 통해 분석할 예정이다.

5) Karl Marx, Ökonomisch-philosophische Manuskripte (1844), in: Marx Engels Werke, Ergänzungsband. Schriften bis 1844, Erster Teil, Berlin 1968, S. 467-588, hier S. 516

6) Ebd., S. 537f.

7) Karl Marx, Das Kapital(1867), Bd. 1, MEW 23, 1968, Zit. nach: Alfred Sohn-Rethel, Technische Intelligenz zwischen Kapitalismus und Sozialismus, in: Technologie und Kapital, Frankfurt a. M. 1973, S. 11-38, hier S. 12

노동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우리는 자연에 대한 승리에 관해 결코 기뻐할 수 없다.⁸⁾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본 자연은 생산력, 즉 생산을 위한 노동의 일차적 ‘원재료 Rohstoff’이지만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여전히 서로를 대상화하지 않고 하나의 전체로서 작용하는 유기적인 관계였다. 그의 일원론적 세계관, 즉 “인간의 자연주의와 자연의 인간주의 Naturalismus des Menschen und [...] Humanismus der Natur”⁹⁾라는 말 역시 자연주체에 대한 기본인식과 인간과 자연의 균형적 수평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생태적 사유의 단초로 이해되며, 자연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가 아닌 인간과 동일한 사회적 가치로 해석될 수 있다.¹⁰⁾ 또한 마르크스의 초기 자본주의 분석에서 기술시대에 따른 생산관계의 불균형과 인간과 자연의 소외(Entfremdung)에 대한 우려는 오늘날 생태적 관점에서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맥락에서 블로흐 역시 기술의 발전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관계를 부르조아 자본주의에서 사회(Gesellschaft), 인간(Mensch), 자연(Natur)의 현실적인 관계를 통해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였다. 자연과의 소통, 벗과 같은 자연, 기술과 자연의 화해 등의 주제는 블로흐가 희망적인 사회를 위해 인간 대 인간, 자연 대 인간의 관계를 근원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던 이유이기도 했다.

마르크스는 역사의 재료를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로 규정했다. [...]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대하는 인간,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부르조아적 관계는 여전히 기술에 의한 자연소외를 중단하지 않은 채 양심의 거리낌조차 없다.¹¹⁾

8) Friedrich Engels, Marx Engels Werke. Berlin 1968, Bd.XX, S.452f., hier zit. nach: Jost Hermand/Peter Morris-Keitel (Hrsg.), Noch ist Deutschland nicht verloren. Ökologische Wunsch- und Warnschriften seit dem späten 18. Jahrhundert, Berlin 2006, S. 50f. “Kurz, das Tier *benutzt* die äußere Natur bloß und bringt Änderungen in ihr einfach durch seine Anwesenheit zustande; der Mensch macht sie durch seine Änderungen seinen Zwecken dienstbar, *beherrscht* sie. Und das ist der letzte, wesentliche Unterschied des Menschen von den übrigen Tieren, und es ist wieder die Arbeit, die diesen Unterschied bewirkt. Schmeicheln wir uns indes nicht zu sehr mit unsern menschlichen Siegen über die Natur.” (원본에 의한 강조)

9) Karl Marx, Ökonomisch-philosophische Manuskripte (1844), a.a.O., S. 538

10) Vgl. ebd., S. 565

11) Ernst Bloch, Das Prinzip Hoffnung, Frankfurt a. M. 1985 (1. Aufl. 1959), S. 813 “Marx

마르크스가 기술에 의한 인간소외를 지적했다면, 이를 계승하는 블로흐가 북미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비판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기술에 의한 자연소외 *technische Naturentfremdung*”¹²⁾였다. 그의 희망의 원리는 인간과 인간이 화해하는 사회적 동맹과 인간이 자연과 화해하는 “자연동맹 *Naturallianz*”, 즉 “벗으로서의 자연현상 *Naturströmung als Freund*”¹³⁾을 구체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인간관계 구조의 개선, 즉 사회개혁을 선행하고자 한다. 또한 새로운 자연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인간은 정신적 삶을 변화시키는 생태미학을 필요로 한다.¹⁴⁾ 블로흐 외에도 생태마르크스주의를 급진적으로 수용하는 루돌프 바로 Rudolf Bahro는 동독의 현실사회주의를 비판하면서 생태적 대안사회로서 ‘제3의 길 *der dritte Weg*’¹⁵⁾을 제안하는 바, 그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생태적 관계회복을 위해 여성, 소수, 개인, 자연을 해방하고 나아가 국가 제도와 위계질서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2. 동독의 문학적 생태논의

1955년 소련에 의한 세계최초의 인공위성 프로젝트 스푸트니크(Sputnik)을 신호탄으로 우주 전쟁의 시대가 막을 열면서 동독 역시 인간의 계몽과 이성, 과학의 위력이 주는 기술승리를 찬양했다. 냉전시대 힘의 논리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치열한 각축전으로 이어졌다. 서독에서 60/70년대 부활절 시위, 반전, 반핵, 여성, 평화, 생태운동의 신 사회운동이 확산되는 사이에 70년대 동독문학은 냉전시절 미국식

bestimmte die geschichtliche Materie als Beziehung der Menschen zu Menschen und zur Natur; [...] Der trotz aller Unterschiede durchschaute Zusammenhang des bürgerlichen Verhaltens von Menschen zu Menschen mit dem zu Natur hebt noch nicht die technische Naturentfremdung auf, wohl aber ihr gute Gewissen.”

12) Ebd.

13) Ebd.

14) Vgl. Ernst Bloch, *Über Naturbilder seit Ausgang des 19. Jahrhunderts*, 1927, in: *Verfremdungen II*, Frankfurt a. M. 1964, S. 80 hier zit. nach Karl Marx: *Naturalisierung - Humanisierung*, in: Jürgen Haupt, *Natur und Lyrik. Naturbeziehungen im 20. Jahrhundert*, Stuttgart 1983, S. 215-224, hier S. 219

15) Vgl. David Bathrick, a.a.O., S. 166

자본주의와 현실 사회주의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참여문학으로 발전해갔다. 동독 내부의 현실비판은 서독의 학생운동과 같이 정치적으로 조직화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젊은 문인과 작가들은 브레히트를 잇는 정치적 자연시, 환경과 생태문제를 소재로 한 산문, 시, 소설을 통해 현실 사회주의를 비판했다. 거시적 관점에서 동서독은 공히 과학, 기술, 진보, 산업의 슬로건을 비방했지만, 이에 저항하는 정치적 강도는 조금 달랐다. 서독과는 달리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SED)은 비밀경찰 슈타지를 통하여 언론, 집회, 결사, 여행의 자유를 통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독 작가들은 수많은 검열과 감시, 도청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문학적으로 표현했다.

동독에서 생태와 환경문제를 둘러싼 본격적 문학토론은 1982년 <자연과 환경을 위한 모임 Gesellschaft für Natur und Umwelt>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 뜻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1987년 심포지움 <환경과 문학을 위한 제 10차 문인회의 10. Schriftstellerkongreß über Umwelt und Literatur>가 개최되었고,¹⁶⁾ 2년 후 1989년 <동독문인협회 Schriftstellerverband der DDR>는 ‘문학과 환경’이라는 주제로 『신 독일 문학지 Neue Deutsche Literatur』를 편집했는데,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인류의 의식은 평화의 유지와 환경의 보존이라는 두 가지 주된 과제를 점차 명확히 느끼고 있다. [...] 생태적 전략과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에 관한 설명, 환경데이터(정부측 환경, 생산, 개발자료)를 넘어서 많은 사실에 대해서도 독자들이 관심을 가지리라 생각한다.¹⁷⁾

동독 작가들이 환경문제가 평화유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이유는 첫째, 미래 생존권이 위협당할지 모른다는 인류학적 문제제기, 둘째, 과학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도덕과 윤리의 관점, 셋째, 기술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동독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의 요구, 넷째, 자연과 환경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확산과 연관되어 있었다. 문인들은 산업화 사회의 자원개발이 미래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을 줄 거라는 정부의 달콤한 해명에 지속적으로 항의했다. 당시 과도한 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16) Vgl. Neue Deutsche Literatur, Monatsschrift für Literatur und Kritik, hrsg. v. Schriftstellerverband der DDR, 37. Jg./H. II/Nov. 1989

17) Ebd., S. 6f.

숲의 파괴, 이산화탄소량의 증가, 도시집중화와 산업오수와 폐수로 인한 강의 파괴 등 생태문제는 삶의 터전의 상실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다. 동독 작가들이 환경파괴로 인해 치닫는 위험성의 경고하면서 급기야 “우리는 자신의 삶을 주변으로 내몰고 있다 Wir leben uns selbst zum Rande des Lebens hin”¹⁸⁾는 인간생존의 위협을 경고하면서 그들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자신의 삶을 변화하고 인간과 자연, 환경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데 문학이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문학이 여과기를 발명할 필요는 없다. 다만 문학은 [현실]을 재점검하고 그것을 재고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아닌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재고해야 한다. 문학은 고통의 막바지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삶의 질이 무엇인가 새로이 규정해야 한다.¹⁹⁾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강압과 폭력을 중단하기 위한 동독 시인들의 노력은 “잡식동물 인간 Allesfresser Mensch”²⁰⁾에 대한 자각과 숙고에서 출발한다. 그들은 기술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자연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운명에 있지만 과도한 소비와 착취를 지양하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인류와 자연의 실존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다.²¹⁾ 이처럼 동독문단이 자연을 기술발전의 희생양으로 삼는 ‘소외된 사회’에 거세게 저항하고 독자들의 생태적인 인식을 고무시키는 양상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 자연과 인간의 의존적 관계를 인식시키는 것, 둘째, 환경문제가 한 개인의 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 셋째, 생태와 “환경에 관한 무지함 Umweltignoranz”²²⁾을 구체적으로 자각시키는 것이다.

18) Jurij Brězan, Der kleine Bach Satkula, in: Neue Deutsche Literatur, 37. Jg./H. II/Nov. 1989, S. 8-10, hier S. 9

19) Ebd., S. 10 “Die Literatur muß nicht Filter erfinden, sie muß nachdenken und Nachdenken erzwingen. Nachdenken in diesem Fall gegen uns und für die Enkel. Und sie muß - bis zur Schmerzgrenze - neu bestimmen, was das ist: Lebensqualität.”

20) Heinz Kahlau, Stand meiner Einsicht, in: Neue Deutsche Literatur, 37. Jg./H. II/Nov. 1989, S. 55

21) Vgl. Jurij Koch, Pläydor für einen Archipel, in: Neue Deutsche Literatur, 37. Jg./H. II/Nov. 1989, S. 104-108, hier S. 106

22) Lia Pirskawetz, Wider die Umweltignoranz, in: Neue Deutsche Literatur, 37. Jg./H. II/Nov. 1989, S. 87-90, hier S. 88

환경에 관한 이야기는 리브스토키처럼 책상에 앉아 읽는 문학이 아니다. 그것은 비터 펠트의 이야기처럼 특정한 공장에서 쓰이는 것도 아니다. 환경에 관한 이야기는 방대한 자료조사를 전제로 한다. 환경문제는 정치집단의 이해관계와 법의 파괴, 신화와 위선의 정글과도 같다.²³⁾

생태문제는 마치 밀림 속 정글처럼 경제와 정치, 산업, 기술, 과학 등의 사회하부 체계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동독문인들에 의한 환경토론은 그 생성초기부터 이미 기존정치에 대항하는 반체제성과 마르크스적 생태이념에 기초한다.²⁴⁾ 가령 ‘백 년 후 지구는 어떻게 될까?’라는 미래사회의 무기한 보류는 미국식 자본주의, 식민주의, 제국주의 비판의 핵심이었다. 또한 동독 사회주의는 내부적으로 기술과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인간의 소외 및 자연 생태계의 자정력이 방해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점차 늘어가던 “기능적 메카니즘 Funktionsmechanismus”과 “기술적 무장 technologische Ausrichtung”²⁵⁾은 인간 대 자연이라는 생산관계의 변형 뿐만 아니라 인간 대 인간(계급)의 반목, 자연과 인간의 소외라는 탈생태적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동독 사회의 자연과 환경파괴 문제는 첫째, 생산방식이 기술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생태순환구조가 깨어졌다는 점, 둘째, 소위 ‘자유 소비재 freie Güter’로 불리던 공기, 물, 천연자원 등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반생태적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점, 셋째, 인간(노동)과 자연의 순환작용의 붕괴로 인한 사회 내부 계층간의 갈등(가령, 사적 소유물)이 확대되는 점이었다. 동독 작가들은 이러한 생태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무엇보다 냉철한 현실적 시각을 요청했다. 그들은 환경문제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에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전 세계적인 시각에서 현존하는 자본주의 세계시장과 사회주의의 근원적인 개조와 변혁

23) Ebd., S. 89f. “Umweltgeschichten findet man nicht wie Liebesstorys am Schreibtisch, auch nicht wie Bitterfelder Geschichten um Umtun in einem einzigen Betrieb. Umweltgeschichten brauchen höchst aufwendiges Recherchieren. Umweltprobleme bilden einen Dschungel von Gruppeninteressen, Gesetzesverletzungen, Mythen und Halbwahrheiten.”

24) Vgl. Gerhard Timm, Die offizielle Ökologiedebatte in der DDR, in: Redaktion Deutschland Archiv (Hrsg.), Umweltprobleme und Umweltbewußtsein in der DDR, Köln 1985, S. 117-149, hier S. 118

25) Ebd., S. 123

을 주장하였다.²⁶⁾

3. 종교적 생태논의

동독의 기독교적 생태운동은 1969년 SED에 의해 <전 독일 개신교 연합 EDK>로부터 분리된 <기독교 연합 Bund der Evangelischen Kirchen>²⁷⁾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교회는 강압적 분리를 대가로 정부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았으므로 비교적 정부의 제약 없이 -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SED의 파트너로서 - 인권과 평화의 타 저항운동세력과 교류할 수 있었다. 특히 1978년 에어푸르트 집회에서 동독 <범종교 기독교회 Ökumenischer Rat der Kirchen>는 환경위기의 원인과 변화가능성을 정치적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1979년 보스틴 종교회의에서 동독 개신교회는 “생태적 생존문제 Ökologische Überlebensfrage”²⁸⁾를 당시 국내외 평화운동의 핵심이던 소련과 서독의 퍼싱 미사일과 같은 국제적인 정치이슈와 함께 논의하였다. 평화와 인권, 생태운동은 자연의 본질적 가치의 전도, 기술에 의한 선행적 발전사관, 소외되어가는 인간의 현실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신학자 및 기독교인들은 과학으로 인한 “자연의 사물화와 객체화 Verdinglichung und Objektivierung der Natur”와 “외부 현실의 측량화와 수학화 Meßbarkeit und Mathematisierbarkeit der äußeren Wirklichkeit”²⁹⁾를 자연파괴의 근원으로 파악했다. 교회는 물질적 역사관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의 평등한 관계를 강조하는 전일적인 가치관을 설파하고 생태적인 “자연과의 연대 Solidarität mit der Natur”³⁰⁾를 주장하였다. 현실적 대안으로는 윤리적 금욕(Askese)과 구체적 생활습관의 개선(전기, 물질약, 재활용과 분리수거, 동/식물의 자연보호지역 확대)을 강조하였다.

26) Vgl. ebd., S. 120

27) Hubertus Knabe, Gesellschaftlicher Dissens im Wandel. Ökologische Diskussion und Umweltengagement in der DDR, in: Redaktion Deutschland Archiv (Hrsg.), Umweltprobleme und Umweltbewußtsein in der DDR, Köln 1985, S. 169-199, hier S. 170

28) 사지원, 생태정신의 녹색사회: 독일, 이담북스 2011, 80쪽 참조

29) Hubertus Knabe, Gesellschaftlicher Dissens im Wandel, a.a.O., S. 175

30) Ebd., S. 173

II. 동독 생태문학의 전개양상: 1945-1979

1. 건설문학에서 도달문학까지

50년대 동독의 ‘건설문학 Aufbau-literatur’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의 긍정적인 힘을 찬양했다. 이후 60년대 비터펠트 노선을 따르는 ‘도달문학 Ankunfts-literatur’이 완성되기까지 동독문학은 사회주의 건설과 파시즘의 청산을 목표표로, 문학을 비롯한 조형, 음악예술은 구 소련식의 ‘사회주의 사실주의 Sozialistischer Realismus’의 기조 아래 유미주의와 추상성을 배제하고 사회주의 이상에 부합하는 영웅적인 노동(자)를 묘사하였다. 이른바 “노동 문학 Literatur der Arbeit”³¹⁾의 작가들은 직접 공장이나 건설현장을 체험하면서 글을 쓰는, 일종의 “글쓰는 노동자 운동 Bewegung schreibender Arbeiter”³²⁾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허나 보브롭스키 같은 전쟁을 체험한 1세대 작가들의 시에 드러난 자연과 풍경은 인간과 직접적으로 갈등하거나 대립하지 않았다. 이들 자연시에 묘사된 초원, 풀, 봄, 산과 같은 자연소재는 오히려 귀환, 고향, 마을을 상징하는 수단이 되었고, 산업화와 도시화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정든 집, 파괴되지 않은 마을, 정든 시골 풍경과 같은 전원적, 목가적 자연소재를 통해 사회주의 전통에 부합하도록 재편성되었다. 가령 베허의 『새로운 대지의 노래 Lied der Neuen Erde』는 도시적 풍경이 아닌 이상적 자연과 마을로의 귀환을 통하여 동독에 건설된 이상향을 찬양하고 동경했다: “결실의 찬가를 불렀지://이 땅엔 주인도 노예도 없네/이 땅에 자유로운 인간이 있으리.”³³⁾

31) Hubertus Knabe, Zweifel an der Industriegesellschaft. Ökologische Kritik in der erzählenden DDR-Literatur, in: Redaktion Deutschland Archiv (Hrsg.), Umweltprobleme und Umweltbewußtsein in der DDR, Köln 1985, S. 201-249, hier S. 203

32) Ebd. 노동문학은 주로 노동계급의 해방과 노동의 긍정성을 고취시키고 사회주의 유토피아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현장의 르포르타주 형식이 유행하였다.

33) Johannes R. Becher, Gedichte, Berlin 1971, S. 392 “Und sang das Hohelied der Fruchtbarkeit://Es herrscht kein Herr mehr und es dient kein Knecht/Es herrscht ein freies menschliches Geschlecht.”

2. 60년대: 파괴된 자연과 풍경

1961년 베를린 장벽이 건설되면서 에릭 노이취나 크리스타 볼프 같은 동독작가들은 황폐화된 자연과 풍경을 조금씩 형상화하기 시작한다. 열광적인 건설문학과는 달리 이들은 60년대 중반 점차 도시적 풍경, 산업에 의해 오염된 자연, 생태계 균형을 잃어가는 파괴된 자연의 모습을 노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실은 훗날 <동독 문인협회 Schriftstellerverband der DDR>(1973)의 전신이던 당시 <독일문인협회 Deutscher Schriftstellerverband>(1950)의 1966년 문학회의에서 잘 엿볼 수 있다. 그들은 “자연 환경에 대한 소외된 관계를 보여주는 반사회주의적인 주장 alle antisozialistischen Auffassungen eines gestörten und entfremdeten Verhältnisses zur natürlichen Umwelt”과 “자연에 대한 인간의 무제한적인 지배자 Menschen als unumschränkten Herrscher über die Natur”³⁴⁾ 역할을 거세게 비난하는 동시에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인 순환관계를 암시하고 인간 역시 자연의 산물이며 자연은 살아 있는 재료(lebende Materie)라는 점을 강조한다.

인간, 이 기이한 창조물은 오직 사회적인 존재만이 아니다. 인간은 사회적이면서도 동시에 자연에 의한 존재이며 일종의 모순되지만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통일체이다. 그리고 그러한 모순의 일치 속에 전 인류의 본질이 존재한다. ³⁵⁾

에리히 아른트나 프란츠 뤼만과 같은 작가들은 인간과 자연의 일원론적 사유를 통하여 억압된 자연의 복권을 주장하고 인간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변화된 태도를 촉구한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동독의 생태 마르크스적 관점, 특히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를 강조하는 “자연의 재발견 Wiederentdeckung der Natur”³⁶⁾이라

34) Hubertus Knabe, Zweifel an der Industriegesellschaft, a.a.O., S. 206

35) VII. Schriftstellerkongreß der DDR. Protokoll, Berlin(Ost) 1973, S. 252, hier zit. nach Hubertus Knabe, Zweifel an der Industriegesellschaft, a.a.O., S. 206 “Der Mensch, dies merkwürdige Geschöpf, ist eben nicht nur ein gesellschaftliches Wesen, er ist von der Gesellschaft wie von der Natur her kommt, eine widersprüchliche, doch unauflösbare Einheit, die eben nur in der Einheit dieses Widerspruchs den ganzen Menschen ausmacht.”

36) Peter Hamm, Die Wiederentdeckung der Wirklichkeit. in: Klaus Schumann, Lyrik des

는 주제가 문학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인들은 자연과학, 사회과학, 철학, 종교 등 제반학문과 더불어 생태문제를 부신했고 토론의 주제도 단순히 동독 내 부문제로 제한되지 않고 국제적인 차원의 생태담론으로 이어졌다.³⁷⁾ 물론 동독의 공식적인 정책에도 환경보호프로그램이 반영되었다. 70년대 동독 환경운동의 토대가 마련되면서 동독정부 역시 이들 모임에 강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았으며 암묵적, 소극적으로 주시하기만 하였다. 그러나 동독정부가 취한 법적/제도적 환경보호 정책은 당시 국제적으로 이슈화된 생태문제에 동참하는 명목상의 기구였을 뿐 구체적인 대응책이나 해결방안은 정부에 의해 현실적으로 공론화되지 못했다. 더욱이 동독정부는 환경정책에 수반되는 비용과 노력을 감당할 수 없었다. 실제로 1968년 동독은 환경오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인민들의 복리를 위해 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것”을 명시하였을 뿐 아니라 1970년 환경오염의 문제를 생산과 계획 경제 분야에 적용하는 “국토문화법 *Landeskultugesetz*”을 의결하기도 하였다.³⁸⁾ 이러한 동독의 형식적인 노력과는 달리, 실제 생태적 인식의 저변확대에는 많은 작가들의 공헌이 컸는데, 가령 50-60년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환경문학³⁹⁾ 기술발전의 낯설음을 노래하는 이른바 “농민희곡 *Bauernndrama*”, “시골문학 *Landliteratur*”⁴⁰⁾은 60년대 동독 시민들에게 환경문제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20. Jahrhunderts, Hamburg 1995, S. 313-315

37) 80년대 말 동독 문인들은 환경문제를 단순히 동독내부의 문제로 보지 않고 전 지구적 환경문제로 인식하였다. 가령 리아 피어스카비츠 Lia Pirskawetz는 자신의 미국 여행을 통해 자본주의적 생태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짐으로써 생태문제를 인류의 “환경범죄 *Umweltkriminalität*”로 바라본다. Vgl. Lia Pirskawetz, Golden Gate Park, in: Neue Deutsche Literatur, 37. Jg./H. II/Nov. 1989, S. 91-98

38) 사지원, 생태정신의 녹색사회: 독일, 이담북스 2011, 75쪽 참조

39) 대표적인 예로써 Gerhard Holtz-Baumert의 『Die drei Frauen und ich』(Berlin, 1973), 『Der Wunderpils』(Berlin 1974), 『Sieben und dreimal sieben Geschichten』(Berlin, 1980) 이 있다.

40) Hubertus Knabe, Zweifel an der Industriegesellschaft, a.a.O., S. 208

3. 70년대: 기억과 회상

동독문학은 1971년 올브레히트가 퇴임하고 호네커가 서기장으로 임명되면서 일대 변동이 일어난다. 70년대 동독문학은 과거 20여 년 간 추진된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깊은 회의와 의구심으로 표출되었다. 많은 작가들은 자연파괴를 정당화하는 동독정부의 반생태적 이면을 생생히 고발하였다. 가령 동독작가 슈뢰더는 「우리 할아버지 어렸을 적 숲에는 In meines Großvaters Kinderwald」에서 아래와 같이 과거를 회고한다.

한순간 그것은 마치 우리가 현실의 일상이 아닌 미래라는 자동 기계에 더 몰두하던 시절로 보였다. 우리는 습지를 말리고 사막에 물을 채우려고 했다. 또한 날씨조차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했다. [...] 어쩌면 우리는 노동자의 노래만이 유일하게 가치있는 것이며, 우리의 행복이 오직 공장과 사무실에서 만들어질 거라고 믿었던 것 같다.⁴¹⁾

작가는 과거에의 회상과 기억을 통하여 ‘공장’과 ‘사무실’, ‘개발’이 암시하는 현실 배금주의에 의구심을 가지며, 이상과의 극적대비를 통해 현실을 낫설어하기 시작한다. 또한 기술과 물질이 주는 현실의 풍요함에 가려진 아름다운 자연의 상실을 애통해한다. 이러한 풍요 속의 빈곤함과 이상적 자연상의 소멸을 유리 브래잔은 숲과 동화의 소멸로 인식한다.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을 가졌네.: 좋은 현대식 가구가 딸린 멋지고 따스한 새집들, [...]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동화를 읽을 수 없었지. 왜냐하면 동화는 늘 숲에 있었으니까.⁴²⁾

41) Claus B. Schröder, In meines Großvaters Kinderwald. Ein Report, Halle/Leipzig 1978, S. 21, hier zit. nach Hubertus Knabe, Zweifel an der Industriegesellschaft, a.a.O., S. 204 “Eine Zeitlang schien es, als wären wir, jedenfalls gedanklich, mehr mit den automatischen Automaten der Zukunft beschäftigt als mit dem Alltag der Gegenwart. Wir wollten alle Sümpfe trockenlegen, alle Wüsten bewässern, oben drüber sollte ein Wunschwetter auf Bestellung stattfinden. [...] Wir hatten geglaubt, daß einzig das Lied der Arbeit singenswert sei. Daß unser Glück einzig in den Werkhallen und planenden Büros gemacht würde.”

작가들은 이제 산책 속 풍경을 파노라마처럼 그려내듯 자연에 몰입하거나 심취할 수 없다. 아름다운 풍경의 소멸은 동화와 꿈의 소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황폐한 자연을 보면서 기억 속 자연을 떠올리거나 상상으로 인해 비애감을 느끼는 70년대 동독 자연시는 대체로 주관적 느낌과 체험에 바탕을 두는 ‘감정시 *Stimmungs-/Gefühlslyrik*’의 형식을 취한다.⁴³⁾ 가령 현실의 풍경은 볼프 키르스텐의 『마을 *dorf*』에서처럼 “무차별적으로 파괴된 주택가/무참히 뜯기고/망가지고 찢겨져/여기저기 아무렇게/버려 형클어진/더러운 쓰레기더 사이에 놓여있다”⁴⁴⁾. 안하무인으로 개발된 택지개발과 토지개혁으로 인해 낯설고 기이한 전경을 마주하는 시인에게 상징과 메타포로 이루어진 과거의 관념적 자연상은 눈앞의 현실과 극도로 불일치한다. 또한 그들의 기억과 회고는 현실 속 풍경과의 단절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처럼 동독의 파괴된 자연풍경을 소재로 하는 “경관시 *Landschaftsgedichte*”⁴⁵⁾는 낯선 자연의 사실적 묘사를 통하여 사회 내부적으로 심화되어가는 관료적 사회주의, 기술주의, 인간과 자연의 불균형, 도시건설의 적막함을 함께 노래한다. 대표적으로 동독 “작센 시파 *Sächsische Dichterschule*”⁴⁶⁾의 자연시는 평화롭고 고즈넉한 작은 마을의 목가적 풍경과 이를 파괴하는 국가의 대도시 건설계획에 대한 비판을 문명-자연의 이분법적인 구도로 투영한다.

사라 키르쉬의 경우, 숲, 여름, 나무, 소풍, 풀 등의 자연소재를 통한 문학적 환상화 작업은 더 이상 몰입과 심취가 불가능한 풍경 앞에서 기존의 은유나 상징이 유효

42) Jurij Brézan, Geschichten von Menschen in der Menschenwelt, in: Neue Deutsche Literatur, hrsg. v. Schriftstellerverband der DDR, 22. Jg./H. 4/1974, S. 15-28, hier S. 22 “Nun hatten die Leute alles: Schöne neue warme Häuser voller schöner neuer moderner Möbel, [...] Aber einen Wald hatten sie nicht mehr und keine Märchen, denn die Märchen waren im Wald gewesen.”

43) Vgl. Wilfried Barner u.a.(Hrsg.), 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 von 1945 bis zur Gegenwart, München 2006 (2.Aufl.), S. 751

44) Wulf Kirsten, *dorf*, in: ders., *der bleibbaum*, Berlin/Weimar 1977, S. 66f. “die zersiedelte siedlung,/wie sie verwegen abhängt,/zerfleddert und zerpflückt/zwischen wilden müllkippen,/die sich verzetteln/von unort zu unort.”

45) Hermann Korte, *Lyrik von 1945 bis zur Gegenwart*, München 1996, S. 78

46) Ebd.

하지 않은, 일종의 ‘관념적 언어의 소멸’ 과정을 잘 보여준다. 그는 기존의 자연메타포와 현실의 자연풍경이 서로 갈등하는 이른바 “혼종의 그림구조 Bildstruktur von Mischbildung”⁴⁷⁾를 통해 잃어버린 이상향을 그리워한다. 아래 키르쉬의『숲 Der Wald』은 특정한 개인과 사회의 선경험이 투영된 이상적인 자연과 파괴된 현실이 극명하게 대립된다.

전기톱이 울부짖는다
 그들이었던 곳에 하늘이 드러난다.
 낮과 밤의 별. 부드러운 이끼와
 초원, 양귀비 그리고 티미안
 그들이 묻네, 대체 왜 늘
 내 발이냐고?⁴⁸⁾

자연이 더 이상 “메타포의 병기고 Arsenal für Metaphernbildung”⁴⁹⁾가 아닌 자연 그 자체가 논쟁화되던 70년대 생태문학은 인간과 자연, 예술에 관한 관념적 유토피아로부터의 이탈과정을 잘 보여준다. 특히 위 시는 과거 신비로운 자연이미지(초원, 양귀비, 별, 이끼, 티미안)로 이루어진 기억 속 숲의 풍경이 경험적 현실(전기톱)과 직접적인 대비를 이루면서 기존의 자연이미지가 더 이상 시적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상기시킨다.⁵⁰⁾ 조화로움이 깨어진 숲, 미적 분위기의 상실, 벌채로 인해 나무 그들로 덮였던 하늘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자연 파괴의 과정은 키르쉬의 여성적인 목소리를 통해 애잔하게 울린다. 자연과 에로스가 결합된 그의 여성적 시어는 “경

47) Silvia Volckmann, Zeit der Kirschem? Das Naturbild in der deutschen Gegenwartsliteratur: Jürgen Becker, Sarah Kirsch, Wolf Biermann, Hans Magnus Enzensberger, Königstein/Ts. 1982, S. 95

48) Sarah Kirsch, Rückenwind, München 1977, S. 44 “Motorsägen heulen./Wo Schatten war, Himmel./Tag- und Nachtgestirn. Die zärtliche Moose/Perlgras Schlafmohn und Thymian/Fragen warum denn/Immer nur mein Fuß?”

49) Silvia Volckmann, a.a.O., S. 113

50) Zit. nach, ebd., S. 117 이에 관해 키르쉬는 “Das war in Mecklenburg. Da wurde ein sehr schöner Wald geholt. Den ganzen Tag heulten die Motorsägen, und es war schrecklich zu hören.”라고 시작(詩作)의 배경을 설명한다.

험적이고 공상적인 주관성의 교착점 *Interferenz von empirischer und imaginierter Subjektivität*”⁵¹⁾으로 기능한다. 또한 자연과 인간의 하모니를 무너뜨리는 기술주의의 상징 ‘모터톱’을 두려워하는 목소리는 아름다운 자연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사회, 인간의 파스함에 대한 기대와 동경이 좌절과 결핍, 실망, 애석함의 음조와 혼합되어 울린다. 키르쉬의 시가 이처럼 주관적 낭만화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외부적 현실에의 불편한 심기이며, 또한 작가 스스로 정의한 대로 자연과 사랑이 동일한 기의로서 작용하는 “(하나의) 환경시이자 연애시 (ein) Umwelt- und Liebesgedicht”⁵²⁾의 이중구조이다.

키르쉬의 “부드러운 저항 *sanfte Revolution*”⁵³⁾이나 키르스텐의 “쓰레기더미시 *Müllhaldenpoesie*”⁵⁴⁾와는 달리 브라운, 비어만, 쿤체, 체흠, 쿠네르트의 공격적 성향의 정치적 자연시는 사회적 맥락과 경험적 자아가 더욱 강하게 충돌하는 계기가 된다. 그들의 시는 문명을 거부하고 도피하려는 체념적 성향이 아니라 오히려 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 과격화에 대한 적극적 저항이었다. 요컨대 그들은 문학을 통해 인간과 환경(Umwelt)이 대립하게 된 기존체제를 비난하였다. 브라운은 70년대 초 『황무지 *Landwüst*』에서 인간과 자연의 모순된 관계와 정치적 틀 안에서 점점 변질되어가는 자연의 풍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당연히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게 당연해
신호는 푸르게 자라고, 선로와
전답. 후손인 나는
젓빛 도면위를 질주하네.
한 순간 지체 없이.⁵⁵⁾

51) Ebd., S. 118

52) Ebd.

53) Hubertus Knabe, Zweifel an der Industriegesellschaft, a.a.O., S. 221

54) Ursula Heukenkamp, Kunstbewußtsein und geistige Strenge. Zur Entwicklung der Lyrik in der DDR der siebziger Jahre, in: P.U.Hohendahl/P. Herminghouse(Hrsg.), Literatur der DDR in den siebziger Jahren, Frankfurt a. M. 1983, S. 82-113, hier S. 91

55) Volker Braun, Landwüst, in: Ders., Gegen die symmetrische Welt, Halle 1974, S. 27

아름다움이라곤 전혀 남지 않은 파괴된 현실을 풍자하는 브라운은 드레스덴의 변모한 풍경 앞에서 이를 명명할 시적언어의 부재를 실감한다. 파괴된 자연은 시인에게 언어의 상실과 결핍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라운은 키르스텐이 스스로를 일종의 “말수집가 Wortesammler”⁵⁶⁾라고 명명한 상태, 즉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 속에서 끊임없이 그 이유를 찾으려 노력한다. 시인이 역사 속 자연, 정치적/사회적 틀 안에서 구조화된 자연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 하는 물음은 생태적 소재 및 주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학의 기능적 문제와 직결되었다. 브라운이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괴테시절은 끝났다”⁵⁷⁾고 주장한 일은 당시 문명과 기술의 혁명이 사회주의 시인들에게 얼마나 생경한 일이었는지 잘 설명하고 있다. 자연과학과 기술에 관한 낯선 용어,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기존언어의 상실과 결핍을 경험하던 작가들은 파괴된 자연의 묘사와 더불어 반생태적 인류의 역사를 주제화하기 시작했고 과학과 기술, 문명을 비판적으로 묘사했다. 요컨대 70년대 동독 생태문학의 뚜렷한 특성은 외부적 경험과 시적인 언어의 부조화, 경험적 자아와 인식론적 주체가 분리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자연상징과 결별한다. 현실의 자연이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수식어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인식했던 시인들은 이상향으로서의 아름다운 자연, 초역사적 자연관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결국 파괴된 자연의 실상을 전달하던 70년대 생태시는 자연에 대한 고전적 상징과 은유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원불변의 자연이미지를 벗어나 역사적으로 파악되는 자연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스케치하는 데 있었다.

“Natürlich bleibt nichts./Nichts bleibt natürlich./Die Signale wachsen grün, die Weichen/Der Äcker. Ich, der Nachfahr/ Lauf über die grauen Entwürfe/Ohne Geduld.”

56) Ursula Heukenkamp, a.a.O., S. 104

57) Volker Braun, Es genügt nicht die einfache Wahrheit. Notate, Frankfurt a. M. 1976, S. 27. “In der Vergangenheit waren Zeiten rascher Entwicklung der Produktionskräfte nicht immer, sondern kaum Blütezeiten der Kunst. Die ‘Goethezeit’ war zu Ende, als die industrielle Revolution in Deutschland begann.”

나오는 말

동독 생태문학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크게 두 가지 부류, 즉 낭만주의적인 ‘자연열광 Naturschwärmerei’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신 낙관론과 문명의 퇴보를 주장하며 반문명적 상황을 경고하는 비관론이 동시에 공존했다.⁵⁸⁾ 그러나 1970년대 중반이후 문학은 파괴된 자연과 그에 대한 낯섦, 탄식과 불만, 체념에서 출발하여 ‘왜 자연이 파괴되었나?’하는 생태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바뀌었다. 왜냐하면 동독이 점차 산업사회의 면모를 갖추고 글쓰기 환경이 변화하면서 그들이 꿈꾸던 유토피아는 말 그대로 이상향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70년대 동독의 생태적 글쓰기의 변화는 그들의 간직했던 이상적 유토피아가 낯선 현실과 끊임없이 대립하면서 기존 자연시의 시어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반증한다. 오히려 작가들은 더 이상 낭만적 목가시나 사적 영역으로의 도피시를 쓰지 않았으며 그들이 사용하는 자연이미지 역시 단순히 자연도취의 메타포도, 불만에 찬 목소리로 청얼거리며 과거를 그리워하는 복고주의도 아니었다. 당시 젊은 작가로 활동하던 칼 미켈, 하인츠 칼라우, 라이너 쿤체, 우베 그레스만, 하인츠 체홉, 귄터 쿠네르트, 폴커 브라운, 사라 키르쉬, 마리아 키르쉬, 볼프 비어만 등은 자신의 시에서 기술열광주의와 낙관주의에 대한 깊은 회의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발전, 영웅주의에 의한 동독의 이데올로기적 문화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문학에 흔히 사용된 파괴된 자연 소재는 그 자체로 쟁점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술숭배, 성과주의, 환경파괴, 문명비판의 정치적 함의를 내포했다. 이처럼 70년대 동독의 생태- 및 환경문학은 마르크스적 의미의 ‘자연소외’와 ‘인간소외’를 철저히 배격하면서 이후 80년대 본격적으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이해와 태도변화를 요청하는 생태적 인식과 생태적 의미찾기로 이어진다.

58) Vgl. Hubertus Knabe, Zweifel an der Industriegesellschaft, a.a.O., S. 206

참고문헌

1차 문헌

Johannes R. Becher, Gedichte, Berlin 1971

Sarah Kirsch, Rückenwind, München 1977

Volker Braun, Gegen die symmetrische Welt, Halle 1974

Wulf Kirsten, dorf, in: ders., der bleibaum, Berlin/Weimar 1977

2차 문헌

김용민, 생태문학. 대안사회를 위한 꿈, 책세상 2003

김용민, 전후 서독문학에서 자연시의 전개과정, 실린 곳: 현실 인식과 독일문학, 1990, 489-521쪽

사지원, 생태정신의 녹색사회:독일, 이담북스 2011

이동승, 독일의 생태시. 그것의 이해를 위한 서론, 실린 곳: 외국문학 7/1990, 32-55쪽

Alfred Sohn-Rethel, Technische Intelligenz zwischen Kapitalismus und Sozialismus, in: Technologie und Kapital, Frankfurt a. M. 1973, S. 11-38

David Bathrick, Die Zerstörung oder der Anfang von Vernunft? Lyrik und Naturbeherrschung in der DDR, in: Reinhold Grimm/Jost Hermand (Hrsg.), Natur und Natürlichkeit, Königstein/Ts. 1981, S. 150-167

Ernst Bloch, Das Prinzip Hoffnung, Frankfurt a. M. 1985 (1. Aufl. 1959)

Friedrich Engels, Marx Engels Werke. Berlin 1968, Bd.XX, S.452f.

Gerhard Timm, Die offizielle Ökologiedebatte in der DDR, in: Redaktion Deutschland Archiv (Hrsg.), Umweltprobleme und Umweltbewußtsein in der DDR, Köln 1985, S. 117-149

Heinz Kahlau, Stand meiner Einsicht, in: Neue Deutsche Literatur, Monatsschrift für Literatur und Kritik, hrsg. v. Schriftstellerverband der DDR, 37. Jahrgang/Heft II/November 1989, S. 55f.

Hermann Korte, Lyrik von 1945 bis zur Gegenwart, München 1996

- Hubertus Knabe, Gesellschaftlicher Dissens im Wandel. Ökologische Diskussion und Umweltengagement in der DDR, in: Redaktion Deutschland Archiv (Hrsg.), Umweltprobleme und Umweltbewußtsein in der DDR, Köln 1985, S. 169-199
- Hubertus Knabe, Zweifel an der Industriegesellschaft. Ökologische Kritik in der erzählenden DDR-Literatur, in: Redaktion Deutschland Archiv (Hrsg.), Umweltprobleme und Umweltbewußtsein in der DDR, Köln 1985, S. 201-249
- Jost Hermand/Peter Morris-Keitel (Hrsg.), Noch ist Deutschland nicht verloren. Ökologische Wunsch- und Warningschriften seit dem späten 18. Jahrhundert, Berlin 2006
- Jurij Brězan, Geschichten von Menschen in der Menschenwelt, in: Neue Deutsche Literatur, hrsg. v. Schriftstellerverband der DDR, 22. Jahrgang/Heft 4/1974, S. 15-28
- Jurij Koch, Pläydor für einen Archipel, in: Neue Deutsche Literatur, Monatsschrift für Literatur und Kritik, hrsg. v. Schriftstellerverband der DDR, 37. Jahrgang/Heft II/November 1989, S. 104-108
- Karl Marx, Ökonomisch-philosophische Manuskripte (1844), in: Marx Engels Werke, Ergänzungsband. Schriften bis 1844, Erster Teil, Berlin 1968, S. 467-588
- Karl Marx: Naturalisierung - Humanisierung, in: Jürgen Haupt, Natur und Lyrik. Naturbeziehungen im 20. Jahrhundert, Stuttgart 1983, S. 207-215
- Lia Pirskaewetz, Golden Gate Park, in: Neue Deutsche Literatur, Monatsschrift für Literatur und Kritik, hrsg. v. Schriftstellerverband der DDR, 37. Jahrgang/Heft II/November 1989, S. 91-98
- Lia Pirskaewetz, Wider die Umweltignoranz, in: Neue Deutsche Literatur, Monatsschrift für Literatur und Kritik, hrsg. v. Schriftstellerverband der DDR, 37. Jahrgang/Heft II/November 1989, S. 87-90
- Peter Hamm, Die Wiederentdeckung der Wirklichkeit. in: Klaus Schumann, Lyrik

des 20. Jahrhunderts, Hamburg 1995, S. 313-315

Silvia Volckmann, Zeit der Kirschen? Das Naturbild in der deutschen
Gegenwartslryrik: Jürgen Becker, Sarah Kirsch, Wolf Biermann, Hans
Magnus Enzensberger, Königstein/Ts. 1982

Ursula Heukenkamp, Kunstbewußtsein und geistige Strenge. Zur Entwicklung der
Lyrik in der DDR der siebziger Jahre, in: P.U.Hohendahl/P. Herminhouse
(Hrsg.), Literatur der DDR in den siebziger Jahren, Frankfurt a. M. 1983,
S. 82-113

Wilfried Barner u.a.(Hrsg.), 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 von 1945 bis zur
Gegenwart, München 2006 (2.Aufl.)

Zusammenfassung

„Natürlich bleibt nichts. Nichts bleibt natürlich.“

– Die Topographie der ökologisch orientierten Literatur in der Ex-DDR(l)

Park, Hyun Jeong (Keimyung Univ.)

Breiten Raum nehmen in der DDR-Literatur der siebziger Jahren die Umweltproblematik und Umweltbeschädigung ein. Es werden vor allem die tieferen Ursachen der ökologischen Krise thematisiert: das herrschende Naturverständnis, die Form des wissenschaftlich-technischen Fortschritts, die Leistungsorientierung der Produktion und die entfremdeten Bedürfnisse in den Produktionsverhältnissen. Der Mensch sucht im Umgang mit der Natur ökologische Alternativen zur utopischen Gesellschaft, und einige Schriftsteller wie Günter Kunert, Sarah Kirsch, Jurij Brězan, Volker Braun, Wolf Biermann, Christa Wolf, Monika Maron üben vehemente Kritik an der sozialistischen Industriegesellschaft.

Naturgedichte sind beispielsweise in Bezug auf den real existierenden Sozialismus

mithin keine Naturlyrik, die in der Nachfolge des deutschen Idealismus steht. Sie vermitteln vielmehr Einblicke in die Strukturen des Erlebens und des ästhetischen Verarbeitens von globalen Umweltthemen in einem sozialistischen Land. Ihre ästhetischen Botschaften liegen tief in den ökonomisch-ökologischen Zusammenhängen und deren politischen Entwicklungen. Während die sogenannte ‚Aufbauliteratur‘ bzw. ‚Ankunftsliteratur‘ in den fünfziger und sechziger Jahren sich durch eine ununterbrochen fortschreitende Technikglorifizierung auszeichnete - wobei allerdings gleichzeitig die ökologisch orientierte Prosa und Lyrik anwuchsen - waren die „Landschaftsgedichte“ der siebziger Jahre in der Ex-DDR vielfach von einer retrospektiven Sichtweise geprägt: Erinnerung und Gedächtnis. Für manche der Gefühls- und Stimmungsgedichte ist charakteristisch, dass die industrielle Umgebung nicht mehr in idyllischen Naturbildern und -metaphern dargestellt werden kann. Es ist auch kaum möglich, die zerstörte Naturlandschaft durch idealistische Symbole zu beschreiben. Im Gedicht *Dorf* (1977) von Wulf Kirsten geht es zum Beispiel um die Bauplanung, die in den siebziger Jahren in Dresden und Meissen durchgeführt wurde. Die expressiven Bilder der Zerstörung wie die 'heulende Motorsäge' werden in *Wald* (1977) von Sarah Kirsch stark mit einem schönen Wald konfrontiert. Auch die realistische Erfahrung in der fortschreitenden Industriegesellschaft wird beispielsweise im Gedicht *Landwüst* (1974) von Volker Braun mit den Zeilen „Natürlich bleibt nichts. Nichts bleibt natürlich“ entlarvt. Das gewisse *Ende der Goethezeit* (Volker Braun) hängt in diesem Fall mit einer literarischen Prämisse, nämlich dem *Ende der Metapher* (Silvia Volckmann) zusammen, wenn die zerstörte Wirklichkeit der schönen Vergangenheit entgegengesetzt wird. Dergestalt entsteht in der DDR-Literatur ein ökologisch orientiertes Schreiben, in dem die konventionelle Natursprache aufgehoben und ein Stück der schönen Natur verschwunden ist.

키워드 :

동독, 마르크스, 생태, 자연, 환경

DDR, Marx, Ökologie, Natur, Umwelt

투고 : 2012년 10월 15일

심사 : 2012년 11월 22일/ 11월 23일/ 11월 24일

게재확정 : 2012년 12월 15일

E-Mail : hyunpark@kmu.ac.kr

주소 : 704-741 대구시 달서구 호산동 삼성한국형아파트 102동 2001호